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설날 가정예배

인도자 : 가족 중

예배의기원 인도자

전능하신 하나님! 설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시간 분명히 확인하게 하여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온 가족이 하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하나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 송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다 같이

1절.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2절.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절.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대표기도 가족 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설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화평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가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도 새로운 계획과 결심들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독 신명기 31장 7~8절 인도자

7.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8.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 씀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인도자

오늘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입니다. 새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부어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2024년을 말씀과 기도로 세워나가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몇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첫째, 가야 할 목적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목적지를 분명히 하지 않는 사람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이라는 분명한 목적지를 알고 있었기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분명한 목적지를 알았기에 험난한 여정도 희망의 길, 행복의 길이 되었습니다.

둘째,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강하고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러뜨릴 수 없었습니다.

2024년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설날

가정에 배



한국기독교
장로회

청주제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13번길 15 (구. 남문로 1가 154번지)

(043) 256 - 3817 ~ 8

셋째,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것은 그의 능력과 자질, 지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악속을 이루어 갑니다. 우리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숙하고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말씀에 근거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길은 주님께서 앞장서시고 우리가 뒤따라가는 겁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뒤를 따르셔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 가정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 송 370장(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 같 이

1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탄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2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 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3절. 내 주는 자비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4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후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기도 문 다 같 이

가족별 나눔의 시간 ... 감사한 것, 미안한 것, 기도제목 등... 다 같 이